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4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2월 2일 (음력 12월 17일) 금요일

장성군 부적정 행정행위 감사서 무더기 적발

장성군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장성군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모두 31건을 적발하고 34명의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함께 5억2200만 원의 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

전남도, 범죄 공무원 승진·편법 수의계약 드러나

‘황룡강 노란꽃잔치’ 성공 개최는 수범사례 평가

감사결과 장성군은 지난해 2월 행정 7급 2명과 사회복지 7급 1명에 대해 근속 승진



“잘 하겠습니다” 만세 외치는 민주평화당 전남도당 1일 전남 여수시민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전라남도당 창당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무대위에서 두손을 높이 들고 ‘민주평화당 만세’를 외치고 있다.

대상자라는 이유로 일반 승진에서 제외하고 근속 승진시키는 등 적정 승진 인원보다 2명을 초과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범죄 사건 처리를 부적절하게 하다 적발됐다.

7급 한 공무원이 주거침입죄로 검찰로부터 벌금 30만 원 처분 통보를 받았지만 징계 하지 않고 지난 2016년 8월 6급으로 승진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성군은 또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업체는 3개월 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다.

지난 2015년 10월 하천 복원사업 계약자인 A 건축사무소가 준공기한을 12일 경과해 88만여 원을 부과해야 했으나 2일만 산정 이 업체가 3건, 2000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에는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다.

장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초화류 등 8억4000만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개인 농가 등 장성 10개 화원에 부당하게 쪼개는 수범으로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1900만 원까지 75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분할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성공 개최는 수범사례로 꼽혔다.

황룡강의 가치를 공감하는 축제로 10억 송이의 긴 꽃강으로 관광영소가 됐다. 누적 관광객이 98만7000명, 1억3700만원 쿠폰 판매 등 관광객 소비축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스



법과 원칙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MB)전 대통령을 평창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참모들에게 ‘꼭 오시도록 직접 초대장을 간네드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달 31일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런 것(평창올림픽 참석)까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참모들은 야당에서 또 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오히려 참모들을 설득하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이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방문해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이 전 대통령 측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스1



문재인



이명박



문재인

비만·저체중자 ‘병역 면제’...신체검사 개정안 어제부터 시행

비만 내지는 저체중의 정도가 심한 병역 의무자는 1일부터 병역판정 신체검사서에서 5급(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신체검사서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어도 개정된 기준에 해당하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이 될 경우 5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담겼다. 가령 신장 175cm

인 경우 체중 42.8kg 미만이거나 153.2kg 이상이면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

기존 규정에는 BMI 지수에서 저체중

화한 것은 비만·저체중의 정도가 심하면 공익근무요원 등의 근무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BMI 지수 14 미만 혹은 50 이상...5급 면제 기준 신설

신장 175cm 경우 42.8kg 미만·153.2kg 이상이면 면제

혹은 비만에 해당하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해야 했다.

이처럼 국방부가 병역 면제 기준을 완

풀이된다. 이미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된 BMI 지수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병역판

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 BMI 지수 변화를 이유로 재검을 통해 기존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는 현행 조항을 없애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현역 복무를 회피하고자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자폐증이나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등 발달장애에 해당할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또 ‘준입상자 감상신 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감상신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도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는다.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4급 대신 5급 판정을 받게 된다.

두근두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

추진 인천연료전지, 청송풍력, 고흥풍력, 서남해상풍력, 심령전망수태양광 운영 경기연료전지, 노을연료전지, 부산연료전지, 한빛솔라, 예천태양광, 고리태양광, 영월태양광, 고리풍력

한국수력원자력은 2005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추진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이 함께 하는 내일의 희망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